

도,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내년 2월까지, 3중 차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5단계 백신접종 구제역·2중 차단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지정된다.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많으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올해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첫째, 철새로부터 농장으로의 확산 방지, 둘째 농장내 유입 차단, 셋째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 등 3중 차단 방역을 중점 추진한다.

철새도래지 방역관리 강화와 농장 차단방역 관리 강화가 이루어지고 농장간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의 AI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고병원성 AI 검출시, 정기검사 주기 추가 단축, 일제검사 및 전축종 출하전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정밀검사 강화 및 대규모 발생에 따른 검사 물량 급증에 대비하여 수의사 동원명령을 시행(9.19.)하여 시료채취 예비 인력을 조기 확보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방역 대책 또한 시행된다.

구제역은 예방접종을 통해 '19년 1월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 등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지속적인 발생으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제역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는 만큼 10월 소와 염소에 대한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한 후, 11월중 백신 접종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백신 항체제조 농가를 대상으로 보강접종과 재검사를 실시한다.

과거 구제역 발생 등 취약한 지역과 백신접종에 소극적인 농장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한우·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 또한 강화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양돈농장에서 4건(5월, 8월, 9월) 발생하였고, 야생멧돼지에서 2,661건이 발생하여 우리도 인접지역까지 발생이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야생멧돼지 집중포획과 12월까지 모든 양돈농가에 7대 중요방역시설을 완료하여 차단방역에 집중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도 집경지역인 충북·경북까지 확산됨에 따라 발생 및 위험지역 40개 시군에 대하여 돼지생축, 분뇨 등 반입 금지지역으로 지정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 야생멧돼지에 대한 수색 및 포획을 강화한다. 우리도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목표(0.7마리/km²)에 따라 6개 산악지역(무주·진안·장수·남원·완주·임실)을 중심으로 집중 포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우리도 살상포획단 413명을 동

원하여 야생멧돼지 3,767두를 포획하였고, 감염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감염된 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전국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23.1~)됨에 따라 우리도 양돈농장에도 방역시설 조기 설치를 독려해 나가고 있다. 현재 전체 686호 중 443호(65%)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는 모든 양돈농장에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농장 중심의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산식품부 신원식 국장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모두의 역할 결집이 필요한 시기로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많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의심축발견시 국번없이 ☎ 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이달의 혁신주인공 선정

사회적경제과 김대철 주무관... 민원 업무 친절행정 실천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친절 주인공'으로 사회적경제과 김대철 주무관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전북도는 매월 다른 주제로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혁신주인공'을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9월에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업무에 성실성의 것 처리해 친절행정을 실천한 직원을 대상으로 '이달의 친절 주인공'을 선정했다.

9월 주인공은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전라북도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았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 혁신주인공으로 선정된 김대철 주무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친절행정을 실천하며 사회적 기업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김 주무관은 사회적기업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 현장에 방문하고 사회적 기업 지정 절차에

복잡한 요소가 있음에도 민원을 성실성의껏 응대했다.

아날 시상식에는 조봉업 행정부처사가 부서를 방문해 기념선물과 동료 직원 명의로 상장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도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주인공 생활과 밀접한 민원업무에 성실성의 것 처리해 친절행정을 실천한 직원을 대상으로 '이달의 친절 주인공'을 선정했다.

김대철 주무관은 "다른 직원분들처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공직생활을 하면서 항상 친절할 마음가짐을 가슴속에 새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봉업 도 행정부처사는 "신뢰받는 도정 구현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친절할 자세를 유지해주시는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서울 초·중·고 대상 농촌유학사업 시행

내달부터 1시·군 1 테마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 확대... 완주·진안·임실·순창·6개 초등학교 협력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오는 10월부터 서울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농촌유학사업 시행한다. 이번 사업에는 완주, 진안, 임실, 순창의 4개 시·군 6개 초등학교가 협력학교로 참여한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8월 서울지역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유학생 32명을 신청받았으며, 도내 유학 협력학교와 거주시설 등을 사전 방문하고 학교장 면담 등을 통해서 최종 27명을 확정했다.

시군별로는 완주군 4명, 진안군 8명, 임실군 11명, 순창군 4명이며, 유형별

로는 가족형태 17명, 센터형 6명, 홈스테이형은 4명으로, 총 27명이 전북으로 농촌유학을 온다.

참여하는 협력학교는 완주 동산초·운주초, 진안 조림초, 임실 지사초·대리초, 순창 동산초로 4개 시·군 6개 초등학교이다. 진안 조림초등학교 농촌유학생은 아토피 치유마을에서 거주하며 건강 회복과 성장 발달에 도움을 받고, 순창 동산초 농촌유학생은 홈스테이를 하면서 국악 등 전통문화와 텃밭 가꾸기 등 농촌 활동을 체험하게 된다.

전북도는 거주시설 제공과 농촌유학 협력학교에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서울시교육청과 전북교육청에서는 농촌유학생에게 월 80만원의 유학경비를 지원한다.

또한 2023년 농촌유학 본사업에서는 유학생들과 재학생들이 함께 어울리고 전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1시군1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완주 숲 체험학교, 임실 김용택 시인 문학교실, 순창 전통문화 체험, 남원 판소리 체험, 무주 태권도 1단 따기, 장수 마사고와 연계한 승마체험, 고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탐방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나게 놀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전라북도만의 특색있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올해 농촌유학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도시의 더 많은 학생들이 농촌유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농촌유학 가족형태 거주시설을 확충하고, 도내 모든 농촌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2023년도에는 농촌 유학생 정착을 위한 유학경비 지원과 농촌유학 협력학교의 적극적인 동참과 인근 초·중·고 학교로 확산을 유도하고, 농촌 유학생과 학부모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거주시설 확충을 위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90억원을 투자해 신규로 3개소를 조성하여, 귀농귀촌 사업과 농촌유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도, 수인성 감염병 주의 당부

전북도내에서 수인성감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도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호주, 이하 연구원)은 최근 가을철에도 늦더위가 지속되고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살모넬라감염증, 비브리오패혈증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지속될 것을 대비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연구원은 연중 도내 협력병원으로 설사, 복통 등 급성설사 증세를 보여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감염성 원인병

원인을 검사·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8, 9월에 수질원 환자 검체 84건 중에서 16건(19.1%)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중 비브리오 패혈증의 경우 올해 전북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작년 발생환자 3명이 가을철에 집중발생(9월 1명, 10월 2명)했다. 특히 만성간질환,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자와 같은 고위

험군의 경우에는 치명률이 50%로 매우 높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수산물을 반드시 익혀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비드물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의 예방법으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등이 있으며 지하수는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한다.

/김경수 기자

도, 동남아 지역 포상관광단 유치 '박차'

국제관광시장 확대 위해·기업체 대상 여행단 적극 유치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한국관광공사 주관하는 '아시아 직판협회 회장단 초청 캠프어(9.25~10.1)'에 참여해 28일 전주에서 아세안 각국 대형 포상관광(인센티브) 송출기업 관계자 대상으로 '전북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어에는 아세안 직판협회 회장단(Rover Living Products, Oilfare 대표이사 등) 7명과 말레이시아 직판협회 이사회 임원(Strike Products Malaysia, ON Enterprise 대표이사 등) 8명 등 총 15명이 참가했다.

방한한 회장단과 아세안 임원들이아 방문단은 28일과 29일, 1박 2일 동안 전북도에 머물며 특색 있는 관광지 및 시설을 답사하고 체험에 참여했다.

이번 방문단은 아세안 지역 대형 인센티브 관광 송출기업 단체장들로 과거 한

국으로 대형 기업 우수 포상여행 단체를 보낸 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방문단은 28일 순창고추장진속마을에서 고추장 만들기 체험과 발효소스 토굴 등을 견학한 후 임실에서 치즈만들기와 임실치즈파티파크 견학을 했다. 그리고 이날 저녁 전라북도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가 공동 개최한 '전북관광 설명회'에 참여했다.

방문단은 29일에 전주한옥마을에서 한복체험 등 전통문화를 체험한다. 오후에는 익산 농가에 방문해 사과 따기 등을 체험한다.

전선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국제관광 시장 확대를 위해 기업체 대상 포상여행단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의 창간 1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총장 박진배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